

# 2014년도 사우디 정부예산 주요 내용

2014. 1. 31

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

□ 사우디 정부는 전년 대비 4.3% 증액한 2,280억 달러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, 금번 예산안은 총지출과 총수입이 각각 2,280억 달러, 총수입 2,280억 달러로 서로 일치하는 균형 예산으로 편성되었음.

○ 2014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최근 지속적인 석유 및 비석유 부문 산업육성정책을 반영하여 인프라·교통·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33.7%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, 젊은층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○ 교육 부문 560억 달러, 보건·사회복지 부문 288억 달러, 지방자치사업 부문 104억 달러, 교통·운송 부문 178억 달러, 수자원·산업·농업 부문 163억 달러 등으로 예산이 배정됨.

## □ 교육 부문

○ 총 560억 달러 배정(전체 예산의 약 25%), 전년 대비 3% 증가한 금액임.

○ 465개 학교 신축에 8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, 기존 1,500개 학교의 교실 증축 및 개보수 사업에도 투자할 예정임.

○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여자 대학교 건설, 8개 대학 신설, 교직원 숙소 건축에 투자할 방침임.

- 전문대학 및 기술기관 신설에 13.9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,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도 추가 예산 1억 3,330만 달러가 편성될 계획임.
- 현재 국비지원 해외 유학생의 수가 18만 5,000명(정부의 지원 부양가족 포함), 지출액 약 59억 달러 규모임.

□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

- 총 288억 달러 배정, 전년 대비 8% 증가한 금액임.
-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의 기초 진료센터 설립을 포함, 11개 신규 병원, 2개의 의료단지, 11개의 의료센터, 10개의 종합 클리닉이 건설될 예정임.
- 현재 33,750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132개, 6,200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의료도시를 건설 중임.
- 사회복지 부문에는 20개 도시에 스포츠 경기장 및 관련 시설 건축, 16개의 사회복지 시설, 노동사무소 건립 등과 장애인 지원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음.

□ 지방자치 사업

- 총 104억 달러 배정, 전년 대비 9% 증가한 금액임.
- 도시 간 도로, 교량, 배수 시설 및 조절 시스템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며, 환경 관련 프로젝트, 메카-리야드 공공 운송 프로젝트 등에도 예산이 편성됨.

□ 인프라, 교통 및 운송

- 총 178억 달러 배정, 전년 대비 2.5% 증가한 금액임.

- 총 3,500km 도로 신설, 기존 항구 증축 및 현대화, 정박시설 증축, 주베일·얀부·라스 알 카이르 산업지구의 인프라 프로젝트, 국내 및 국제선 공항과 철도 개보수 등에 107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, 이는 전년 대비 33.7% 증가한 금액임.

□ 수자원, 농업, 산업, 기타 자원

- 총 163억 달러 배정, 전년 대비 5.7% 증가한 금액임.
- 댐 건설, 담수화, 대수층 개발(지하수), 수처리 및 관개 네트워크 개선 등에 총 88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.
- 아울러 산업도시의 인프라 구축 및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착수될 예정이며, 여기에는 곡물 저장소의 신축·증축 사업도 포함됨.

□ 특별 금융지원 기관 및 정부 금융 프로그램

- 일자리 확대 및 미래성장 촉진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펀드, 사우디산업개발펀드(SIDF), 저축은행, 농업개발펀드, 공공투자펀드, 정부대출 프로그램 등에 227.5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.
- 상기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대출금액은 현재까지 약 1,433억 달러에 달함.